

광주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또 난항

법원, 1순위 배제 효력정지 결정

광주시, 항소심 패소 뎀

11월 착공계획 차질 불가피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난맥상을 보인 광주 운동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애초 투자공모에서 1순위 협상 대상이었지만,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녹색친환경에너지는 본안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임시 처분 성격의 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1심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본안과 마찬가지로 1심 때 기각된 효력정지 신청이 2심에

서 일부 인용돼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항소심 본안 선고 때까지 녹색친환경에너지에 우선협상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따라서 1심 판결 후 2순위 업체인 ㈜빛고을에너지개발전소와 시가 추진한 사업도 당분간 중단될 수 있다.

시는 1심 판결 뒤 후순위 업체인 빛고을 태양광발전소와 협약을 하고 실시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법적 조건을 받아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하는지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효력정지 인용 결정은 항소심 본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상급심에서 기존 1순위 업체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타’로 등장한 2순위 업체와 사업 추진이 무효가 돼 또 다른 갈림길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운동동 27만9000여㎡ 매립장에 민자 220억원(빛고을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측 협약 기준)을 유치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12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은 시장은 “청년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겠다”며 시청 1층에 운영하는 ‘광주 일자리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한 채용을 권유했다. 판로 확보, 인력난 해소 등 대책을 바라는 청년 창업가들의 건의에 이어진 답변이었다.

시는 아이 플렉스 광주에 유망 창업기업 8개를 무상임대시켰으며 올해 선정된 예비창업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옥시 청문회 진상규명 선서 아타 사프탈 옥시 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을 대표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사 불참...반쪽자리 ‘옥시 청문회’

유해성 실험 중단 이유 추궁

‘가습기살균제 국회 청문회’ 첫날인 29일, 여야 의원들은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영국본사 책임을 추궁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28명 중 옥시 본사 관계자 등을 포함한 13명이 출석답변을 하지 않거나, 불출석 입장을 전달해와 ‘반쪽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레킷벤키저가 2001년 옥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유해성 실험이 중단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한편으로, 특위 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레킷벤키저와 옥시의 인수·합병이 이뤄지기 전인 2000년 옥시가 제품의 흡입독성 실험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인수합병이 이뤄지기 전 한국을 방문한 본사 측의 요구로 실험을 중단

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표였던 신현우 전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2001년 연구소에 온 본사 측 연구원은 ‘가습기담반’의 흡입독성 실험을 중단하고 그 자료를 영국으로 넘기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데에는 본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주요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브 제인 전 옥시 대표 등 옥시 본사 관계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레킷벤키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레킷벤키저가 영국 정부의 요청을 이유로 특위의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하지

만, 영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본사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여부를 영국정부가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소속인 우원식 위원장은 “대사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국외로 국민을 기망하고 속인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아타 사프탈 옥시 한국 측 대표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영업하는 국가의 국내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가습기 유해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은 당시 독성유해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체부, 법인 설립 허가

사무국 직제도 승인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조직위 법인 설립 허가 및 조직위 사무국 직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공문으로 요청한 법인 설립 허가 및 직제 승인이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된 것은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앞으로 광주지법에 조직위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무국 개소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무국은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3급 사무국장 1명, 4급 2명, 5급 4명, 6급 11명, 7급 이하 14명, 전문계약직 2명 등 모두 35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내년까지 35명 체제를 유지하고 오는 2018년 80여 명, 2019년 140여 명

으로 규모를 확대해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영대회 개최에 대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지원본부 조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본부 설립은 행정자치부의 승인 사항인데, 그동안 광주시의 승인 요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광주시는 부이사관(3급)을 본부장으로 한 2과, 4담당, 24명 규모의 지원본부 조직 승인을 제출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직급(3급) 책정의 타당성 부족과 함께 조직위와 사무국이 구상되지 않았고 대회시설 사업계획과 총사업비 미승인, 현 단계에서 대회의 규모와 제반여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광주시는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지만, 시 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과 맞물려 행자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당분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청년기업 제품 공공기관에 우선 납품 추진

광주시가 청년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 먼저 납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9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있는 복합산업시설 아이 플렉스(I-Plex)에서 열린 ‘광주 청년창업캠프’를 찾아 청년창업가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좋은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창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창업 기업 제품이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우선 납품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약속했다.

윤 시장은 “청년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겠다”며 시청 1층에 운영하는 ‘광주 일자리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한 채용을 권유했다. 판로 확보, 인력난 해소 등 대책을 바라는 청년 창업가들의 건의에 이어진 답변이었다.

시는 아이 플렉스 광주에 유망 창업기업 8개를 무상임대시켰으며 올해 선정된 예비창업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사임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해 구속된 흥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여·58) 대표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초호화 외유’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은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29일 주필직에서 물러났다.

송희영 주필은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최근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 과정에 저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것을 보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주필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필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사의를 표명하고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검찰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경강’과 서울 정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 8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4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8	1
사범	유아교육과	19	1
예능	음악학과	10	5
	실용음악학과	17	1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6. 9. 12(월) ~ 21(수) • 전형일 : 2016. 9. 30(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형일 : 2017. 1. 12(목)

대학원

▶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1(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16. 11. 4(금) 오후 3시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8(화)

② 전형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2016. 11. 11(금) 오후 2시30분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2016. 11. 11(금) 오전 9시 40분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2016. 11. 12(토) 오후 2시40분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2016. 11. 12(토) 오후 2시 40분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6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